
'21년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시행계획

근거 : 제2차 쌀가공산업육성 5개년 기본계획(2019~2023)

2021. 2.



농림축산식품부
식량산업과

순 서

I. 계획의 수립 배경	1
II. 2020년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	2
III. 쌀가공산업 육성 기본방향	3
IV. 2021년 과제별 추진계획	4
V. 추진일정	10
〈참고〉 제2차('19~'23) 쌀가공산업 기본계획 요약	11

I. 계획의 수립 배경

1 수립 배경

- 「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」 수립('19.6월)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필요

- (법적근거) 「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

<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>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쌀가공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*하고 있는 쌀 소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HMR, 글루텐 프리 등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

* 1인당 연간 밥쌀용 쌀 소비(kg) : ('88) 122.2 → ('20) 57.7

- 반면, 쌀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다수로 기술 투자 여력이 부족하여 기술개발, 신시장 창출 등의 혁신성장 동력 부족
- 쌀가공산업의 성장세를 배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·인력 양성·투자 확대 등 산업혁신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- 유망 품목 발굴, 수요 창출, 수출지원 등을 통해 쌀가공식품의 소비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쌀 소비 촉진 필요

2 추진 경과

- ('11.11월) 쌀가공산업법 제정('12.5월 시행)
- ('14.10월) 제1차 쌀가공산업 및 쌀 이용 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
*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('14~'18)
- ('19.6월) 제2차 쌀가공산업 및 쌀 이용 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
*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('19~'20)

Ⅱ. 2020년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

1 성과

- 가공밥, 떡류 등 케이푸드의 인기로 쌀가공식품 수출이 증가*하여 2020년 수출액 137백만불 달성

* 쌀가공식품 수출액(전체) : ('18) 89.3백만불 → ('19) 108.4 (21.4%↑) → ('20) 137.6 (26.9%↑)

- 쌀가공식품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쌀가공식품 산업대전*, 쌀가공품 품평회** 및 수출 인프라 조성 등 지원

* '20년 기준 산업대전 계약추진액(상담 주선 건수) : US\$ 816,817(33건)

** '19년 기준 TOP10 제품 매출액 평균 13%, 선정업체 매출액 평균 9% 증가

- 매체를 활용한 소비 촉진 홍보로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

- TV다큐(쌀의 역사·문화 소개), 광고(쌀의 영양·간편함 강조) 등 쌀 관련 영상 제작·송출을 통해 쌀·쌀가공식품 호감도 증가*에 기여

* 쌀·쌀가공식품 호감도: ('18) 69.6% → ('19) 70.0 → ('20) 74.4

2 보완 필요사항

- 원료 중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*, 업체별 원료 수급 현황 파악 어려움

* '20년 가공용 쌀 총소비량(주정용 소비량 제외) 중 정부양곡 소비량 : 64.4%

⇒ 가공용 쌀 재배단지 확대 등 민간에서 공급되는 쌀 공급량을 늘리고, 업체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원료 수급 현황 파악 및 소비 확대 유도

- 개별 업체별 해외시장 진출로 인해 수출 과정상 어려움 존재

⇒ '쌀가공식품 수출협의회' 운영을 통한 수출 공동 대응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, 해외 유통채널과 연계한 BtoB 지원 추진

Ⅲ. 쌀가공산업 육성 기본방향

목표

◇ 쌀가공산업 성장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

- 매출액 : ('18) 5.3조원 → ('23) 7.0(연 5.7% ↑)
- 쌀 소비량(주정용 제외) : ('18) 568천톤 → ('23) 630 (연 2.1% ↑)
- 수출규모 : ('18) 89백만\$ → ('23) 170(연 13.8% ↑)
- 신규 일자리 창출 : ('18) 724명 → ('23) 3,865(누적)

세부 추진 과제

① 미래 유망 분야 발굴·지원

- 유망시장 분야 제품 육성
- 밀가루 대체를 위한 쌀가루 산업 육성
- 전략 수출국에 대한 수출 집중 지원

② 산업 혁신기반 강화

- 원료의 안정적 공급
 - (구곡) 정부양곡 공급체계 개선
 - (신곡) 가공용 쌀 재배단지 관리 체계화
-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
- R&D 및 전문인력 육성 등
- 정확한 통계 및 정보 제공

③ 수요기반 확대

- 학교 급식 등 공공수요 확대
- 유통채널 확충 및 소비 홍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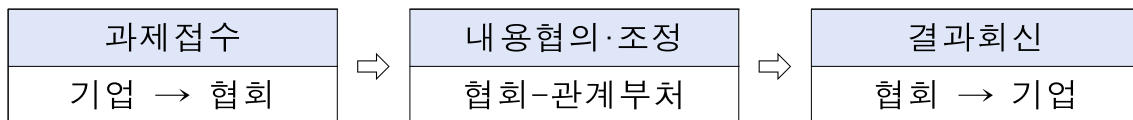
IV. 2021년 과제별 추진계획

1 미래 유망분야 발굴 · 지원

과제 1-1 유망시장 분야 제품 육성

□ 규제 개선 모니터링반 운영(쌀가공식품협회)

-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수행하는 별도 모니터링반을 지정·운영하여 회원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 적극 파악
- 유망시장 분야 제품 육성에 있어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조정 후 관련 기업에 회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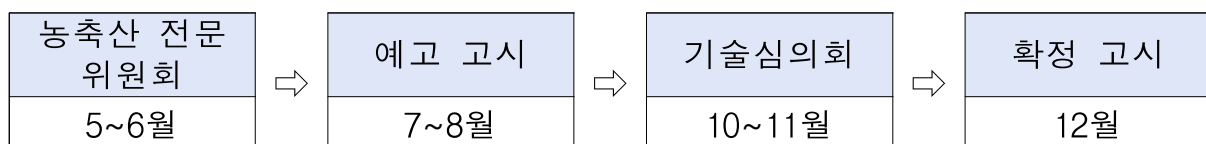
과제 1-2 쌀가루 산업 육성

□ 쌀가루 KS 표준 개정(식량산업과)

- 쌀가루 제품 활용에 있어 범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쌀가루 KS 기준*에 추가로 '다목적용' 도입 추진(~12월)

* 쌀가루 KS 기준(2017) : 떡용 쌀가루, 면용 쌀가루, 제빵용 쌀가루, 제과용 쌀가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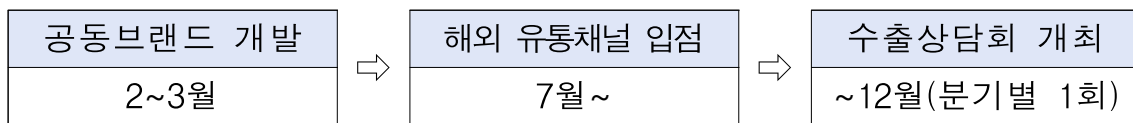
- 표시사항에 글루텐 함량, 아밀로오스 함량 등을 추가하여 보완



과제 1-3 수출 지원 강화

□ 쌀가공식품 수출·마케팅 지원(쌀가공식품협회)

- 쌀가공식품 수출협의회 운영을 통한 공동브랜드 개발, 공동마케팅 등 기업 간 협력을 중심으로 국내외 브랜드 경쟁력 강화
- 해외 상설 도매전시장 및 온라인 플랫폼을 거점으로 현지 유통채널을 연계하고, 유통업체 바이어 대상 수출상담회 개최



□ 수출 주요 국가별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(aT)

- (미국) 가정간편식 소비 증가 추세에 따라 Home Dining(HMR·면류) 품목과 연계하여 쌀가공품 온·오프라인 판촉* 및 소포장재·신제품 개발 지원

* 배달앱과 연계한 온라인 HMR K-Food Fair(B2C) 개최 추진

- (일본) 떡볶이 수출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, 수출 정제 품목인 막걸리(RCEP 수혜 품목) 수출지원 강화

* RCEP으로 막걸리 관세가 철폐되면서 막걸리 한 병당 가격이 약 7% 감소

- (중국) 온라인 유통이 발달한 장점을 활용하여 전자상거래 유통기업*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온라인 입점 및 쌀가공품 판촉 추진

* 중국 전자상거래 유통기업 : 티몰, 징둥, 허마센성 등

- (신남방) 민간 한류 행사(K-CON) 등 한류 콘텐츠를 홍보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온라인판촉*에 집중

* 모바일 라이브 e커머스(온라인쇼핑몰 + TV홈쇼핑) 연계 판촉 추진

- (다변화) 신북방·중동 등 간편식 시장이 성장 중인 국가 대상으로 확대

2 산업 혁신기반 강화

과제 2-1 원료의 안정적 공급

□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(식량정책과)

- 국내산은 정부 재고 여건에 따라 감량('20: 110천톤 → '21: 50)하고, 수입산은 국내산 감소 물량을 고려하여 증량('20: 207천톤 → '21: 310)

* 가공용 쌀 공급량 : ('18) 260천톤 → ('19) 300 → ('20) 317 → ('21) 360

- '가공용 쌀 수급 관리시스템'을 통해 매월 수급 현황 파악 및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별공급된 쌀에 대한 부정 유통 여부 점검

* 정부양곡 용도별 배정량, 제품생산 현황, 판매처 및 판매량 등 입력·관리

□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추진(식량정책과)

- 현장에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, 정부양곡 관련 자료 분류 체계 정립 및 추출·분석 기능 추가

- 통합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및 최적화 알고리즘*을 활용한 정부양곡 관리로 재고 관리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

* 보관 기간 등을 고려한 입·출고 우선순위 추천, 장기보관 재고 등 이상 데이터 추출, 운송 거리 등을 고려한 가공 및 수송체계 추천 등

□ 가공용 쌀 재배단지 관리 체계화(식량산업과)

- 계약재배로 가공용 쌀을 매입하는 업체 대상 의견수렴(3월)을 통해 재배단지 확대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안 검토(4월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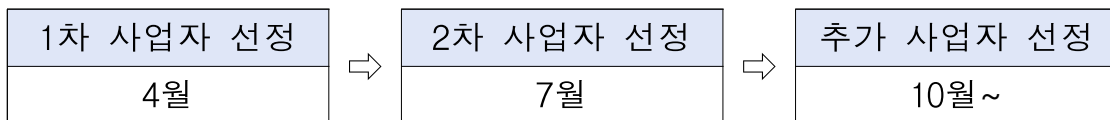
- 가공용 쌀 생산단지 대상으로 농진청과 연계한 신품종, 재배관리법 소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유도(4월~)

과제 2-2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

□ 시설·개보수 및 운영·수매자금 지원 지속(식량산업과, 식량정책과)

- 쌀가공업체에 시설·개보수, 운영·수매자금을 융자 지원*(연 500억원)하고,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 한도 확대('20: 70억 → '21: 100) 추진

* 연간 500억원(쌀가공업체 400억원, 정부관리양곡 도정·보관업체 100억원)



□ 쌀가공업체 품질·위생 역량 강화(aT)

-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 제조·가공 업체의 위생 안전 및 품질 개선 지원*을 통한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기반 구축

* 컨설팅 지원 분야 : [위생] HACCP, FSSC22000, ISO22000, GMP 인증 획득, 식품안전시스템 구축, [품질개선] 식품 제조 공정개선, 브랜드디자인, 포장디자인

- 식품 기업 사전진단을 통해 성장단계별 다양한 컨설팅* 추진

* 사전진단 → 단기 역량 제고(단순 문제 해결) → 심층 컨설팅(심화)

과제 2-3 R&D 및 전문인력 육성

□ 가공용 쌀 품종개발 및 원료곡 단지 조성 확대(농진청)

- 초다수성(758kg/10a), 복합내병성 품종인 밀양356호의 용도 다양화*, 2차 취반(전자레인지)에 적합한 간편식 특성 평가 및 소재 개발 추진

* (양조용) 막걸리 및 청주용, (간편식용) 볶음밥 등 간편식 소재 개발

- 가공용 특수미에 대한 신품종 현장 실증* 및 산업체와 연계한 특수미 원료곡 단지 조성 확대**('20: 1,651ha → '21: 2,000) 추진

* 상주(미르찰-떡·유과용), 순창(미르찰-고추장용), 광양(한아름4호-막걸리용) 등

** 한아름찰(CJ브리딩, 1,000ha), 진도흑메·진흑찰(진도군 500ha) 등

□ 기능성 소재 등 혁신적 신수요 창출(농진청)

- 저항전분 함유 ‘도담쌀’의 소비자 맞춤형 가공 소재화 등 쌀 및 쌀가루를 활용한 기능성 증대 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
- 가공용 쌀의 품질 지표, 쌀가루 소재화 연구 등 원료곡 품질평가 방법 및 가공·저장조건 설정에 관한 연구 추진

□ 쌀가공기술 발굴 및 현장 확산 지원(실용화재단)

-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소개자료 작성·배포(5건) 및 우수성과 확산을 위한 맞춤형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*(7회) 추진

* 농촌진흥청,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공동 추진 예정

- 대형 온라인 포털, 우체국 쇼핑몰 등과 연계하여 기술이전 업체 대상 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및 온라인 채널 홍보 추진

□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(쌀가공식품협회)

- 업체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떡 제조기능사*(국가기술자격) 및 퓨전 떡 제조법 등 떡 제조 역량 강화 교육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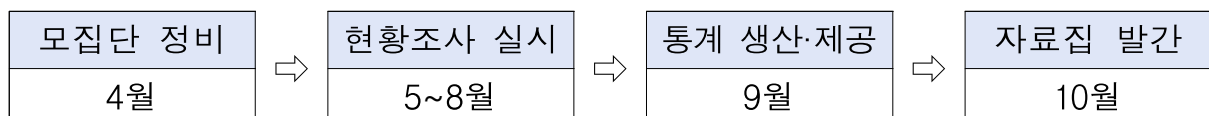
* 교육내용 : 떡 제조 기초 이론, 우리나라 떡의 역사와 문화, 위생 안전관리 등

- 노무관리, 원가관리, 품질관리 등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교육 추진(5월~)

과제 2-4 | 정확한 통계 및 정보 제공

□ 쌀가공산업 현황조사 실시(쌀가공식품협회)

- 쌀가공산업 현황 파악 및 정책적 활용을 위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확보하고 조사된 데이터를 통해 연속성 있는 통계 생산·제공



3 수요기반 확대

과제 3-1 학교급식 등 공공수요 확대

□ 홍보 대상별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식습관 형성(농정원)

- 어린이 대상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관심 유도를 통한 잠재 소비층 확보를 위하여 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체험 학습 진행*
* 잠실 롯데월드 ‘키자니아’ 내 전시장과 체험장으로 구성된 식량정보센터 운영
- 초등학생 대상 교과 과정과 연계한 쌀 중심 식습관 교육, 온라인 콘텐츠 및 교구(쌀 체험키트) 지원 등 ‘쌀 맛나는 학교’ 사업 진행
-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 대상 ‘천원의 아침밥’ 캠페인을 진행, 일반식당까지 확대 운영하고 도시락 포장을 병행하여 추진

과제 3-2 유통채널 확충 및 소비 홍보

□ 쌀가공식품 판로 확대 및 유통 지원(한국쌀가공식품협회)

-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산업대전*은 비대면 전시기반을 강화하고, 품평회**는 쇼핑몰과 연계하여 판매 실적 중심의 평가방식 도입
* ‘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’과 연계 개최(7.27~30), 비대면 전시(코트라, 협회 전시관) 강화
** 쇼핑몰 연계 품평회를 통해 대표 상품(TOP10)을 선정하고 유통·마케팅 지원 추진

□ 온·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소비기반 확대(농정원)

- 소비경향을 반영한 핵심 메시지 설정 및 쌀 품종, 영양학적 정보 수집을 통한 마케팅 요소 발굴·확산 등 체계적인 홍보 추진
- 백설기의 날, 쌀의 날, 가래떡의 날 등 쌀 관련 행사를 활용하여 쌀 및 쌀가공품 시식과 연계한 다양한 쌀 소비 유도 추진

V. 추진일정

- 쌀가공산업 육성 관련 기관·단체에 시행계획 시달(2월)
 - 기관·단체별 해당 과제 추진계획 시행(2월~)
- 2021년 쌀가공산업 시행계획 주체별 추진계획 점검·환류(6월)
 -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·환류를 통해 추진계획 수정·시행(6월~)
- 2021년 쌀가공산업 시행계획 성과분석을 위한 전문가 평가회 개최(11월)
 - 성과분석 등을 통해 개편안 도출 및 '22년 시행계획(안) 마련(12월)

1. 수립배경

- 쌀 가공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*하고 있는 쌀 소비를 **활성화** 하는 동시에 HMR, 글루텐 프리 등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

* 1인당 연간 밥쌀용 쌀 소비(kg) : ('88) 122.2 → ('18) 61.0

- 그간 법률제정('11), 1차 쌀가공산업 육성계획('14~'18) 수립·시행 등을 통해 쌀 가공산업 규모가 **외형적으로 크게 성장***

* ('13→'17) 매출액 4.1조원 → 4.9, 쌀 소비량 471천톤 → 492, 수출액 56백만불 → 72

- 반면, 쌀 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다수로 기술 투자 여력이 부족하여 기술 개발, 신시장 창출 등의 **혁신성장 동력 부족**

* 「중소기업법」상 중소기업 기준인 매출액 800억원 미만 업체 비중이 99.7%

- 쌀가공산업의 **규모화·전문화**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, R&D 및 재정·세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

2. 목표 및 추진방향

① [목표] 쌀 가공산업의 성장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

구분	('13)	'18	'23	비고('18→'23)
▪ 매출액(조원)	(4.1)	5.3	7.0	연 5.7% ↑
▪ 쌀 소비량(천톤)	(471)	568	630~670	연 2.1~3.4% ↑
▪ 수출규모(백만불)	(56)	89	170	연 13.8% ↑
▪ 신규 일자리(명)	(0)	724	3,865	연 773명 ↑

* 단, 쌀 소비량 중 주정용은 제외

② [추진방향] 산업 내실화를 위해 산업혁신 기반 강화 및 소비처 확대

- 쌀가공산업의 성장세를 배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·인력 양성·투자 확대 등 **산업혁신 기반 강화**
- 유망 품목 발굴, 소비 창출, 수출 등을 통해 쌀 가공제품의 소비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

3. 주요 추진과제

① 미래 유망분야 발굴·지원 ⇨ HMR·쌀가루 집중 육성 및 수출지원

- (유망분야 육성) HMR 등 유망분야에 대한 R&D, 업체 시설 지원 확대('18 : 한도 50억원 → '23 : 100), 시장동향 제공(연 1회, 정기보고서)
 - 비식용 분야* 특별 공급('20)을 통해 혁신적 신수요 창출 지원
 - * 쌀 빨대(세계 플라스틱 시장규모 431조원), 라이스클레이(슬라임 대체) 등
 - '규제신고센터' 운영(신규, '19~)을 통해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
- (쌀가루) 대체재(밀가루)와 가격 경쟁이 가능한 건식 쌀가루 특별 공급('20), KS 규격 제품 생산을 촉진*하여 산업 기반 확대
 - * KS 기준 강화(전분손상도 축소 등), 쌀가루 등급제('22) 시행 등
- (수출) 미국·유럽은 글루텐 프리 인증제 도입('19~), 동남아는 한류스타 연계 홍보 지원 등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
 - 수출 집중 품목(쌀과자, 떡류)의 수출 과정상 애로(장기 상온 유통 등)를 해결할 수 있도록 '수출연구사업단' 지원(과기과 협조, '20~)

② 산업혁신 기반강화 : 원료 공급체계 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

- (원료 공급) 가공용 쌀 소비를 확대(연 2.1% ↑)하되, 정부양곡 의존도는 낮추고('18 : 45.8% → '23 : 38.8), 민간조달의 효율성 제고
 - (정부양곡) 중장기 수급계획을 제시(공급량 예측 가능성 제고)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, 품질 개선을 위한 정부 양곡 도정평가제 도입('20)
 - (민간조달) 생산-유통-가공 계열화(들녘경영체·RPC 연계 등), 민간 가공용 재배단지의 체계적 관리·육성('19 : 35개 → '23 : 56) 추진

- (시설·경영개선) 설비투자에 대한 **융자 지원**(연 400억원)과 병행하여, 경영 노하우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**컨설팅 지원**(연 80건)
 - 쌀 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(연 200명)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('19, 신규)
- (R&D) 농진청은 KS 고도화 등 **기반기술 개발***에 집중하고, 민간 기업은 직접 제품 품질 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**R&D 바우처 지원**(연 19억원)
 - * 제품 맞춤형 전용 품종 개발 5건, 쌀가루 KS 범위 확대(건식 추가, 등급제 등)
- (인증제) 쌀 가공기업 **인증제 도입**(‘21~)을 통해 쌀 가공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지원정책의 기반 마련
- (통계 제공) 기업의 정보 수요를 반영한 ‘쌀 가공제품 통계 정보 지도’ 구축(‘23, aT 또는 관련 협회)

③ 수요 기반 확대 ⇨ 학교·군대 등 공공 급식 수요 확대, 홍보 강화

- (공공수요) 미래 세대가 쌀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 등을 통해 쌀가공제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
 - (학교) 쌀 가공식품 급식을 지속 추진하고, 쌀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교육도 병행 추진(초등학생 대상, 연 13만명 내외)
 - (군대) 군 급식 내 쌀 가공식품의 종류를 확대(‘18 : 7종→’23 : 9) 하고, 쌀 가공제품의 배급 횟수 등 증대
- (홍보강화) 쌀 가공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더불어 바이어 대상 산업대전 개최, 우수 제품 유통 채널 입점 등 **국내외 판로 확충 지원**
 - 쌀·쌀 가공제품에 대한 영상 공모전, 라디오 사연 코너 등 참여형 캠페인 운영을 통해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